

문체부 ·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날개 꿈틀

‘새로운 수장’ 도종환 장관 · 나종민 · 노태강 제1~2차관 부임으로 조금씩 활기 띄고 있어

활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구속 수감된 조윤선 전 장관과 김종 2차관 등을 대신할 새로운 수장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그간 숨 죽여왔던 문체부도 다시 한번 비상한 날개를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체부는 도종환 장관과 나종민 제 1차관, 노태강 제 2차관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다.

문체부 직원들은 새로운 수장들이 오면서 적지 않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그간 부당한 업무 지시와 소통 단절,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던 문체부는 남모름 속앓이를 해아만 했다.

수장의 공백으로 업무도 사실상 울스톱이 됐다. 1, 2차관이 장관의 빈자리를 대신했지만 무게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직원들 역시 컨트론타워 부재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종환 장관이 새로 부임하고 이를 보좌할 차관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기대는 눈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문화와 체육 전문가들이 장·차관에 새롭게 부임하면서 직원들 역시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태강 2차관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노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찍힌 뒤 지난해 5월 강제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청와대는 노 차관에 대해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책임자라고 내다봤다.



“축하합니다” 충북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17 한화희망배 전국사격대회 남자 일반 10m 공기권총 결승경기에 출전한 진중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같은 팀 한승수 선수와 악수하고 있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노 차관이 복귀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노 차관의 경우 동료, 선배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분위기였고 그만큼 신뢰가 두터웠다”며 “노 차관의 복귀는 최근 주목 들어 있던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변화 감지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느끼고 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게 강제 모금을 당한 기업들의 지원이 사실상 끊기면서 부족한 재원 마련에 고민했던 조직위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20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노 차관이 부임 후 첫 출장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

를 찾아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날 도 장관은 조직위 주사무소에서 조직위로부터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대회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빙상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최식이 열린 강릉올림픽아트센터 등 건설 현황을 방문해 대회 관련 시설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서, 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지켜봤는데 주관부처 장관으로서 현장을 방문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도 장관이 현장을 방문 할 때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설 현장에서 도 장관을 맞이한 김철래 강릉 부시장은 도 장관에게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도 장관은 “얼마면 되느냐”며 구체적인 액수를 묻고 지원을 약속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활력이 도는 것은 사실이다”며 “대회 범용 조성이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역시 과거 정부에서 이야기 한 것과는 무게가 다를 것이다.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강조한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김보경, J리그 가시와 이적 압박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 미드필더 김보경의 J리그 이적이 임박했다. 전북 관계자는 21일 J리그 가시와 레이솔로부터 김보경의 이적 제의를 받았다. 현재 세부 조항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매체 스포니치는 김보경의 가시와 이적 소식을 전하며 “김보경은 J리그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 7월21일 이후 등록될 예정이다. 데뷔전은 30일 샌다이와의 원정경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J리그 오이타 트리니타에서 임대 선수 신분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보경은 이듬해 세레소 오사카로 복귀해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김보경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의 동메달 획득에 기여한 뒤 잉글랜드 프로축구 카디프 시티로 이적, 유럽과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 위건 애슬레틱(잉글랜드)과 미쓰모토 이비키(일본)를 거친 김보경은 2016년 1월 전북에 입단했다.

가시와는 J리그 15경기에서 10승1무4패(승점 31)를 거둬 선두에 올라있다. 6년 만에 리그 우승을 노리는 가시와는 김보경을 통해 공격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근기자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 유니폼 공개



KBO(총재 구본능)는 7월14일과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017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을 앞두고 드림 올스타(투수, SK, 롯데, 삼성, kt)와 나눔 올스타(KNC, 넥센, LG, KIA, 한화)의 유니폼을 21일 공개했다.

마제스티에서 제작한 올스타 유니폼은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의 상징인 하늘색과 빨간색을 대표색상으로 채택했으며 승화전사 기법을 적용한 별 무늬 패턴과 밑단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색채 변화를 줘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한, 작은 별들이 모여 큰 별 무늬가 되는 디자인은 KBO 리그 인기 스타들이 모인 최고의 야구 축제를 올스타전을 상징한다.

올스타 유니폼을 포함한 어센틱 모자, 기념품, 기념티셔츠, 머그컵 등 올스타 상품 전체 라인업은 7월3일 오후 2시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식 온라인 판매처인 라커디움(www.lodarium.com)에서 판매 개시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구매는 올스타전이 열리는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7월14일, 15일 이틀 동안 가능하다.

올스타 유니폼 가격은 어센틱 8만3000원, 레플리카 5만9000원이며, 온라인 구매 시에 한해 2만원을 추가할 경우 원하는 선수의 이름과 배번을 마킹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 득과 실은?

엔트리 23명 한국 선수 약 10명 올림픽 출전 포기해야

“남북 선수들 간 기량 차가 커 팀 전력 떨어질 것” 지적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0일 부임 후 첫 출장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를 찾아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도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장관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언급한 이유는 본인 출전 가능성이 높은 거의 유일한 단체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출전권을 따지 못한 만큼 동계 종목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일팀이 성사된다면 남북의 긴장 관계

를 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선수들의 희생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엔트리는 23명이다.

만약 북한이 남북한 동수 출전을 요구할 경우, 평창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피땀을 흘린 한국 선수 약 10명 정도는 꿈을 접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과 북한의 기량 차가 커서 단일팀의 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약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을 앞두고 전술 훈련 조직력 등을 단기간에 맞추기도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도 장관 역시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 도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단일팀이 구성되면 우리 선수단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의견도 중요하고, IOC와 북한 측의 입장이 들어보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24~30일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 소속을 이끌고 방한하는 장용 IOC 위원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